

- PART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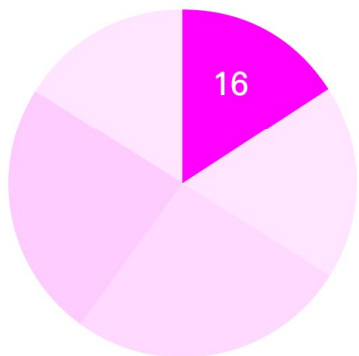
최근 5개년 기출문제

“

1. 국어 문법

”

• 출제 비율 •



• 분포율 •



단위(%)

출제 경향 및 학습법

1 언어와 국어

- (1)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특징'에 대해 묻습니다. 출제 빈도는 높지 않으며, 꼭 맞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언어의 특성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국어의 특징을 문법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핵심 출제 키워드
 - 1) 언어의 특성: 분절성,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 2) 국어의 특징: 음운론적 특징, 형태론적 특징, 통사론적 특징, 어휘적 특징

2 음운론

- (1) '음운의 종류와 체계', '음운 변동'에 대해 묻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 변동 전후의 음운의 개수 변화, 음운 변동의 횟수를 복합적으로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정 단어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속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표준 발음법도 학습해야 합니다.
- (2) 핵심 출제 키워드
 - 1) 음운의 종류와 체계: 자·모음의 구분
 - 2) 음운 변동: 교체(대치), 탈락, 축약, 첨가

3 형태론

- (1) '형태소', '품사의 구분',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해 묻습니다. 국어 문법 영역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최근의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서는 형태소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태소는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품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품사의 통용'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학습해야 합니다. 또 단어 형성 방식과 관련해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3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된 복합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2) 핵심 출제 키워드
 - 1) 형태소: 형태소 분석과 구분
 - 2) 품사: 접속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구분,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용언과 관형사의 구분, 품사의 통용
 - 3) 단어 형성 방식: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 복합어의 구조 분석,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의 구분

4 통사론

- (1) '문장의 성분', '문장의 짜임새', '문법 요소'들에 대해 묻습니다. 최근에는 문장의 짜임새와 관련하여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을 분석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으며, 문법 요소 중에는 높임법, 피동·사동 표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관형절에 대한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고, 높임법, 피동·사동 표현 관련 개념들을 명확히 학습해야 합니다.
- (2) 핵심 출제 키워드
 - 1) 문장의 짜임새: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 2) 문법 요소: 높임 표현, 피동·사동 표현

5 옛말의 문법

- (1) 훈민정음 제자 원리, 훈민정음의 문자 운용 방식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문자 운용 방식을 명확히 학습해야 하고, 중세국어 문헌의 세부적인 문법은 기출문제와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핵심 출제 키워드
 - 1) 훈민정음 제자 원리: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 기본 음운 포함 여부
 - 2) 중세국어 문법: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제 서문 문법

언어와 국어

01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상)

-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준다.
- ② ‘값’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 ③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 ④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유형 언어와 국어 / 국어의 특징 / 음운론적 · 형태론적 · 통사론적 · 어휘적 특징

해설

‘값’은 [갑]으로 발음된다. 국어의 음절 말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중 한 음운으로 발음되며,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

정답 ②

02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水]’이 현대 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대[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 ① 사회성 ② 역사성
- ③ 자의성 ④ 분절성

유형 언어와 국어 / 언어의 특성 / 역사성

해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생성, 변화, 소멸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오답풀이

- ① 사회성: 언어는 소통하기 위해 언중 간에 약속된 체계이므로, 한 개인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특성이다.
- ③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특성이다.
- ④ 분절성: 언어는 형태상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으며, 의미상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특성이다.

정답 ②

03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 못 짝지어진 것은?

2019 서울시 9급(하)

| 보기 1 |

-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뱌]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뱌’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 보기 2 |

- ㉠ 규칙성 ㉡ 역사성
- ㉢ 창조성 ㉣ 사회성

- ① (가) - ㉠ ② (나) - ㉣
- ③ (다) - ㉢ ④ (라) - ㉡

유형 언어와 국어 / 언어의 특성 / 역사성, 사회성, 창조성, 자의성

해설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언어의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특성인 ‘자의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 규칙성’은 언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리킨다.

정답 ④

음운론

04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 | |
|-------|-------|
| ㉠ 식용유 | ㉡ 헛걸음 |
| ㉢ 안팎일 | ㉣ 입학생 |

- ① ㉠과 ㉢은 각각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
- ② ㉠과 ㉣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
- ③ ㉡과 ㉣은 각각 음운의 대체가 나타난다.
- ④ ㉡과 ㉣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유형 음운론 / 음운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

해설

㉠~㉣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다.

- ㉠ 식용유: [시공유](연음) → [시공뉴]('ㄴ' 첨가, 첨가). '식용(食用)'은 한자 합성어로, '식'이 자음으로 끝나고 '용'이 반모음 'ㅣ [j]'로 시작하지만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이다. 이때에는 받침소리가 대표음으로 발음된 후 연음되는데, '식'의 끝소리가 이미 대표음 [ㄱ]으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연음되어 '식용'은 [시공]으로 발음한다(연음). 그리고 '식용유'는 '식용'과 '유'가 결합한 파생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공뉴]로 발음된다(첨가). 음운 변동 중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난다.
- ㉡ 헛걸음: [헛걸음](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체) → [헛꺄음](된소리되기, 대체) → [헛꺄름](연음). '헛'의 끝소리 'ㅅ'이 '꺄'의 첫소리 'ㄱ'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먼저 [ㄷ]으로 발음된다(대체). 그 후,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규칙에 따라, 이 'ㄷ' 뒤에서 '꺄'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발음된다(대체). 마지막으로 출발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꺄]의 끝소리 'ㄹ'이 연음되어 끝음절이 [름]으로 발음된다(연음). 음운 변동 중 대체만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 안팎일: [안팎닐]('ㄴ' 첨가, 첨가) → [안팎닐](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체) → [안팎닐](비음화, 대체). '안팎일'은 '안팎'과 '일'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먼저 [안팎닐]로 발음된다(첨가). 그 후, '안팎'의 끝소리 'ㅍ'이 'ㄴ'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으로 발음되고(대체), [안팎]의 끝소리 'ㄱ'이 [닐]의 첫소리 'ㄴ' 앞에서 비음화에 의해 [ㅇ]으로 발음된다(대체). 음운 변동 중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난다.

- ㉣ 입학생: [이팍생](자음 축약, 축약) → [이팍쌩](된소리되기, 대체). '입'의 끝소리 'ㅍ'과 '학'의 첫소리 'ㅎ'이 만나 이 두 음운이 자음 축약에 의해 합쳐져서 먼저 [ㅍ]으로 발음된다(축약). 그 후,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규칙에 따라 [팍]의 끝소리 'ㄱ' 뒤에서 '쌩'의 첫소리 'ㅅ'이 된소리 [ㅅ]로 발음된다(대체). 음운 변동 중 축약이 일어나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든다. ㉠에는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나고, ㉡에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1개 줄므로, ㉠과 ㉡은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지 않고 다르다.

오답풀이

- ① 둘 다 'ㄴ' 첨가가 일어난다.
- ③ 둘 다 대체가 일어난다.
- ④ 둘 다 된소리되기에 의한 대체가 일어난다.

정답 ②

05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엌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9급

	변동 전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유형 음운론 / 음운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

해설

- 부엌일: [부엌닐]('ㄴ' 첨가, 첨가) → [부엌닐](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 [부엌닐](비음화, 교체). '부엌일'은 '부엌'과 '일'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먼저 [부엌닐]로 발음된다(첨가). 그 후, '부엌'의 끝소리 'ㅋ'이 'ㄴ'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으로 발음되고(교체), [부엌]의 끝소리 'ㄱ'이 [닐]의 첫소리 'ㄴ'과 만나 비음화에 의해 [ㅇ]으로 발음된다(교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엌일'은 최종적으로 [부엌닐]로 발음된다.

정답 ①

06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9급

- ㉠ 가을일[가을릴] ㉡ 텃마당[툰마당]
- ㉢ 입학생[이팍쌩] ㉣ 흙먼지[흥먼지]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유형 음운론 / 음운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의 개수

해설

• 입학생: [이팍쌩](자음 축약, 축약) → [이팍쌩](된소리되기, 교체). ‘입’의 끝소리 ‘ㅂ’과 ‘학’의 첫소리 ‘ㅎ’이 만나 이 두 음운이 자음 축약에 의해 합쳐져서 먼저 [ㅍ]으로 발음된다(축약). 그 후,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규칙에 따라 ‘팍’의 끝소리 ‘ㄱ’ 뒤에서 ‘쌩’의 첫소리 ‘ㅅ’이 된소리 [ㅆ]로 발음된다(교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학생’은 최종적으로 [이팍쌩]으로 발음된다. 축약이 일어나면서 음운의 수가 하나 줄었으므로,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가을일: [가을닐]('ㄴ' 첨가, 첨가) → [가을릴](유음화, 교체). ‘가을 일’은 ‘가을’과 ‘일’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먼저 [가을닐]로 발음된다(첨가). 그 후 ‘가을’의 끝소리 ‘ㄹ’과 ‘닐’의 첫소리 ‘ㄴ’이 만나, 이 ‘ㄴ’이 유음화에 의해 [ㄹ]로 발음된다(교체). 따라서 ‘가을일’에는 ‘첨가’와 ‘교체’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텃마당: [툰마당](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 [툰마당](비음화, 음운의 교체). ‘텃’의 끝소리 ‘ㅅ’이 ‘마’의 첫소리 ‘ㄹ’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먼저 [ㄷ]으로 발음된다(교체). 그 후, 이 ‘ㄷ’이 ‘마’의 첫소리 ‘ㄹ’과 만나 비음화에 의해 [ㄴ]으로 발음된다(교체). ‘ㄴ’은 치조음이면서 비음, ‘ㄹ’은 양순음이면서 비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식이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④ 흙먼지: [흑먼지](자음군 단순화, 탈락) → [흥먼지](비음화, 음운의 교체). ‘흙’의 겹받침 ‘ㄹ’이 ‘먼’의 첫소리 ‘ㄹ’ 앞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먼저 [ㄱ]으로 발음된다(탈락). 그 후 이 ‘ㄱ’이 ‘먼지’의 첫소리 ‘ㄹ’과 만나 비음화에 의해 [ㅇ]으로 발음된다(교체). ‘흙’의 겹받침 ‘ㄹ’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왔을 때,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 즉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정답 ③

07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상)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유형 음운론 / 음운의 종류와 체계 / 음운의 개념

해설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도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 음운에 포함된다.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와 같이 따로 분절되지 않는 음운들을 비분절 음운(초분절소)이라고 한다.

오답풀이

- ② ‘말’과 ‘밭’처럼 같은 자리에 오는 두 음성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한다.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음성들은 모두 별개의 음운이 되며,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한 음운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음성들을 ‘변이음(變異音)’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은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는 울림소리가 된다. 다만, 국어에서는 이 음운들이 다르게 발음될 때, 그것을 특별히 변별하는 발음을 표시하지 않으며,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한다.
- ④ 음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다.

정답 ①

15 <보기> 중 음운변동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상)

보기	
ㄱ. 발전	ㄴ. 국화
ㄷ. 솔잎	ㄹ. 독립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ㄷ, ㄹ

유형 음운론 / 음운 변동 / 음운의 개수

해설

- ㄴ. 국화: [구꺠](자음 축약, 축약). '국'의 끝소리 'ㄱ'과 '화'의 첫소리 'ㅎ'이 만나 이 두 음운이 자음 축약에 의해 합쳐져서 [꺠]로 발음되며(축약), 음운의 수가 축약에 의해 1개 줄었다.
- ㄷ. 솔잎: [솔뉘]('ㄴ' 첨가, 첨가) → [솔립](유음화, 교체) → [솔립](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솔잎'은 '솔'과 '잎'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먼저[솔뉘]으로 발음된다(첨가). 그 후, '솔'의 끝소리 'ㄹ'과 '뉘'의 첫소리 'ㄴ'이 만나 이 'ㄴ'이 유음화에 의해 [ㄹ]로 발음된다(교체). 마지막으로 '뉘'의 끝소리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으로 발음된다(교체). 음운의 수가 첨가에 의해 1개 늘었다.

오답풀이

- ㄱ. 발전(發展/發電)[발전].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칙에 따라 '발'의 받침 'ㄹ' 뒤에 오는 '전'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 [ㅌ]으로 발음된다(교체). 교체만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의 수에는 변화가 없다.
- ㄹ. 독립: [독립](비음화, 교체) → [독립](비음화, 교체). '독'의 끝소리 'ㄱ'과 '립'의 첫소리 'ㄹ' 만나 이 'ㄹ'이 비음화에 의해 먼저 [ㄴ]으로 발음된다. 그 후, '독'의 끝소리 'ㄱ'이 이 'ㄴ'과 만나 비음화에 의해 [ㅇ]으로 발음된다. 교체만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의 수에는 변화가 없다.

정답 ③

16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상)

-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ㄴ, ㄷ, ㅌ'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는 원순 모음이다.

유형 음운론 / 음운의 종류와 체계 / 자·모음의 구분

해설

'ㄴ, ㅁ, ㅇ'은 모두 비음이다.

정답 ①

17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9급

- ㉠ 대치-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탈락-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 첨가-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 축약-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도치-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국+만 → [궁만]
- ② 물+난리 → [물랄리]
- ③ 입+고 → [입꼬]
- ④ 한+여름 → [한녀름]

유형 음운론 / 음운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

해설

한여름[한녀름]('ㄴ' 첨가, 첨가).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한녀름]으로 발음되므로(첨가),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①, ②, ③은 모두 음운의 대치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국만[궁만](비음화, 교체). '국'의 끝소리 'ㄱ'이 '만'의 첫소리 'ㅁ'과 만나 비음화에 의해 [ㅇ]으로 발음된다(교체).
 - ② 물난리[물랄리](유음화, 교체) → [물랄리](유음화, 교체). '물'의 끝소리 'ㄹ'과 '난'의 첫소리 'ㄴ', '난'의 끝소리 'ㄴ'과 '리'의 첫소리 'ㄹ'이 만나 이 'ㄴ' 둘 모두 유음화에 의해 [ㄹ]로 발음된다(교체).
 - ③ 입고[입꼬](된소리되기, 교체).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규칙에 따라, '입'의 끝소리 'ㅂ' 뒤에서 '고'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발음된다(교체).
- ※ 음운의 '도치'는 한 단어나 어군(語群)의 내부에서 두 음소 또는 그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으로, '뱃복(臍)>뱃곱>배꼽'과 같은 변화 과정에서 'ㄱ'과 'ㅂ'이 위치를 바꾼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④

18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 모두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보기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라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로 규정한다. 예컨대 'ㅌ'은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가로: [+경구개음], [-후음]
- ② 미비: [-경구개음], [+후음]
- ③ 부고: [+양순음], [-치조음]
- ④ 효과: [-후음], [-연구개음]

유형 음운론 / 음운의 종류와 체계 / 자음의 구분

해설

<보기>는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부고'의 'ㅂ'은 양순음, 'ㄱ'은 연구개음이므로 '[+양순음], [-치조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맞다.

오답풀이

- ① '가로'의 'ㄱ'은 연구개음, 'ㄹ'은 치조음이므로 '[-경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내야 한다.
- ② '미비'의 'ㅁ, ㅂ'은 모두 양순음이므로 '[-경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내야 한다.
- ④ '효과'의 'ㅎ'은 후음, 'ㄱ'은 연구개음이므로 '[+후음], [+연구개음]'으로 나타내야 한다.

정답 ③

19 다음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애'와 '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7 지방직 7급

'애'와 '에'를 구별하는 '()'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① 혀의 앞뒤 관련 자질
- ② 혀의 높낮이 관련 자질
- ③ 소리의 강약 관련 자질
- ④ 소리의 장단 관련 자질

유형 음운론 / 음운의 종류와 체계 / 모음의 구분

해설

'혀의 높낮이'에 따라 '애'는 저모음으로 구분되고, '에'는 중모음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혀의 높낮이 관련 자질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애'와 '에'는 둘 다 혀의 앞에서 발음되는 '전설모음'이면서 발음할 때 입술이 양옆으로 벌어지는 '평순모음'이므로, '혀의 앞뒤' 관련 자질이나 '입술의 모양'에 따른 구분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불분명해서 '애'와 '에'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20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 서울시 7급

보기

국어에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① 늦었으니 어서 자.
- ② 여기 잠깐만 서서 기다려.
- ③ 조금만 천천히 가자.
- ④ 일단 간 보면 알 수 있겠지.

유형 음운론 / 음운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

해설

'가자'는 '가다'의 어간 '가-'에 종결어미 '-자'가 결합한 것으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풀이

- ① 자(다)+-아 → 자. 어간과 어미에서 'ㅏ'가 중복되어, 어간 '자'의 'ㅏ'가 탈락했다.
- ② 서(다)+-어서 → 서서. 어간과 어미에서 'ㅓ'가 중복되어, 어간 '서'의 'ㅓ'가 탈락했다.
- ④ 가(다)+-아 → 가. 어간과 어미에서 'ㅏ'가 중복되어, 어간 '가'의 'ㅏ'가 탈락했다.

정답 ③

2022 9·7급 기태국어 Step2
기출분석

나의 채점표

국어 문법[1회]

번호	정답	체크		난도	출제 영역		
		○	×		대분류	중분류	출제 키워드
1	②			중	언어와 국어	국어의 특징	음운론적 · 형태론적 · 통사론적 · 어휘적 특징
2	②			하	언어와 국어	언어의 특성	역사성
3	④			하	언어와 국어	언어의 특성	역사성, 사회성, 창조성, 자의성
4	②			하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5	①			하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6	③			중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의 개수
7	①			중	음운론	음운의 종류와 체계	음운의 개념
8	①			중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의 개수
9	①			중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10	③			하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 현상
11	④			상	음운론	음운 변동	조음 위치, 조음 방법의 분석
12	③			중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13	③			하	음운론	음운의 종류와 체계	자음의 구분
14	①			중	음운론	음운 변동	순행 · 역행 동화의 구분
15	③			중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의 개수
16	①			하	음운론	음운의 종류와 체계	자 · 모음의 구분
17	④			중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18	③			상	음운론	음운의 종류와 체계	자음의 구분
19	②			중	음운론	음운의 종류와 체계	모음의 구분
20	③			상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점 개념

01 다음 단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기상직 7급

- ① '서울역'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며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 ② '값지다'는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며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다.
- ③ '내복약'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며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어난다.
- ④ '술하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며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유형 음운론 / 음운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의 개수

해설

• 값지다: [값지다](자음군 단순화, 탈락) → [갑찌다](된소리되기, 교체). '값'의 겹받침 'ㅁ'이 'ㄷ'의 첫소리 'ㄷ' 앞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ㅂ]으로 발음된다(탈락). 그 후,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규칙에 따라 이 'ㅂ' 뒤에서 'ㄷ'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 [ㅈ]으로 발음된다(교체). 따라서 '값지다'는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며 탈락에 의해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었다.

오답풀이

- ① • 서울역: [서울역](ㄴ 첨가, 첨가) → [서울력](유음화, 교체). '서울역'은 '서울'과 '역'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ㄴ'나 반모음 'ㄹ[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먼저 [서울녁]으로 발음된다. 그 후, '울'의 끝소리 'ㄹ'과 '녁'의 첫소리 'ㄴ'이 만나 이 'ㄴ'이 유음화에 의해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서울역'에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난다.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첨가에 의해 1개 늘었다.
- ③ • 내복약: [내복약](ㄴ 첨가, 첨가) → [내봉약](비음화, 교체). '내복약'은 '내복'과 '약'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ㄴ'나 반모음 'ㄹ[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덧붙는다는 규칙에 따라 먼저 [내복녁]으로 발음된다. 그 후, '복'의 끝소리 'ㄱ'이 '약'의 첫소리 'ㄴ'과 만나 비음화에 의해 [ㅇ]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내복약'에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난다. 그러나 첨가에 의해 음운의 개수가 2개 늘어난 것이 아니라 1개 늘었다.
- ④ • 술하다: [술하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 [수타다](자음 축약, 축약). '술'의 끝소리 'ㅌ'이 '하'의 첫소리 'ㅎ'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된다. 그 후, 이 'ㄷ'이 '하'의 첫소리 'ㅎ'과 만나 이 두 음운이 자음 축약에 의해 합쳐져서 [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술하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난다. 그러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약에 의해 1개 줄었다.

정답 ②

형태론

02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 지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용언의 불규칙활용은 크게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 | |
|-----------------|----------------|
| ㉠ | ㉡ |
| ① 걸음이 <u>빠름</u> | 꽃이 <u>노람</u> |
| ② 잔치를 <u>치름</u> | 공부를 <u>함</u> |
| ③ 라면이 <u>불음</u> | 합격을 <u>바람</u> |
| ④ 우물물을 <u>품</u> | 목적지에 <u>이름</u> |

유형 형태론 / 품사 / 불규칙활용의 구분

해설

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대부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그 불규칙활용의 양상이 드러난다. 용언의 기본형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아/-어'를 결합해 보면 불규칙활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물물을 품 → '품'의 기본형은 '푸다'이며 어간 '푸-'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퍼'로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간의 끝소리 'ㄱ'가 어미 '-어' 탈락하는 '우' 불규칙용언이며,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목적지에 이름 → '이름'의 기본형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달다'라는 뜻의 '이르다'이다. 어간 '이르-'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이르러'로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간의 끝음절 'ㄹ' 뒤의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용언이며,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
- 걸음이 빠름 → '빠름'의 기본형은 '빠르다'이다. 어간 '빠르-'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빨라'로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간의 끝음절 'ㄹ'가 어미 '-아' 앞에 올 때, 'ㄹ'의 'ㄹ'이 탈락하면서 'ㄹ'이 덧생기는 '르' 불규칙용언이며,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꽃이 노람 → '노람'의 기본형은 '노랳다'이다. 어간 '노랳-'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노래'로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면서 어미도 모습을 바꾸는 'ㅎ' 불규칙용언이며,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

- 잔치를 치름 → '치름'의 기본형은 '치르다'이다. 어간 '치르-'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치러'로 활용한다. 이렇게 어간의 끝모음 'ㄹ'이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것은 같은 조건하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규칙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공부를 함 → '함'의 기본형은 '하다'이다. 어간 '하-'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하여'로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미 '-아'가 '-어'로 바뀌는 '여' 불규칙용언이며,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

- 라면이 불음 → '불음'의 기본형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의 '붓다'이다. 어간 '붓-'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불어'로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르'로 바뀌는 'ㄷ' 불규칙용언이며,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합격을 바람 → '바람'의 기본형은 '바라다'이다. 어간 '바라-'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바라'로 활용한다. 'ㅏ'나 'ㅑ'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같은 조건하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규칙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03 밑줄 친 말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닌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카페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 ② 하늘이 맑고 파랗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 ③ 그들은 자정에 이르러서야 집에 도착했다.
- ④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한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규칙용언과 불규칙용언의 구분

해설

'잠가야'는 '잠그다'+-아야의 구조로 된 것으로, 어간의 끝 '으'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준 것이다. 어간의 끝 '으'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주는 것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므로, '잠가야'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오답풀이

- ① '흐르(다)+-었-+-다'의 구조로 된 것으로, 어간의 끝음절 '르'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르'의 'ㄹ'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뀌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 ② '파랗(다)+-아'의 구조로 된 것으로, 어간의 끝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줄면서 어미 '-아'가 '-애'로 나타나는 'ㅎ' 불규칙 용언이다.
- ③ '이르(다)+-어서+아'의 구조로 된 것으로,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리' 불규칙 용언이다.

정답 ④

04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2019 국가직 9급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까?

① ㉠, ㉡

② ㉡, ㉢

③ ㉢, ㉣

④ ㉣, ㉤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구분, 품사의 통용

해설

- ㉠: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인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관형사 '다른'은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라는 뜻으로 쓰인다.
-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인 '크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크다'가 '1. 동식물의 몸의 길이가 자라다, 2.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3. 수준이나 능력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동사이다.
- ㉢: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라는 뜻인 '나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 ㉣: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의 뜻으로, 관형사이다.
- ㉤: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아니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아니다'는 '1.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형용사이다.

정답 ②

05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9급(하)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통용

해설

‘밝다’가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일 때는 동사, 그 외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이다. ③은 동사이고 ①, ②, ④는 모두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 ①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
- ②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다.
- ④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정답 ③

06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상)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한자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조

해설

‘인간(人間)’의 ‘인’은 어근이지만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오답풀이

- ① ‘연장(延長)’은 ‘늘이다+길게’, ‘하산(下山)’은 ‘내려오다+산에서’로 풀이되므로, ‘서술어+부사어’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우정(友情)’은 비자립적 어근 ‘우(友)’와 단어 ‘정(情)’이, ‘대문(大門)’은 비자립적 어근 ‘대(大)’와 단어 ‘문(門)’이 결합한 것이다. 비자립적 어근은 실질형태소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는 어근을 뜻하는 말이다.
- ④ 한자어의 반복합성어는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처럼 한자 하나하나가 반복되어 형성되지만 고유어의 반복합성어는 ‘구석구석’, ‘하루하루’처럼 단어 단위로 반복되어 형성된다.

정답 ②

07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상)

- ① 떠내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쭙어봤다

유형 형태론 / 형태소 / 형태소의 개수

해설

‘떠내려갔다’는 ‘뜨(다)/-어/내리(다)/-어/가(다)/-았-/-다’의 7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따라 버렸다: 따르(다)+-아+버리(다)+-었-+-다. → 5개.
- ③ 빌어 먹었다: 빌(다)+-어+먹(다)+-었-+-다. → 5개.
- ④ 여쭙어봤다: 여쭙(다)+-어+보(다)+-았-+-다. → 5개.

정답 ①

08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9급(상)

- ① 묻다(問) ② 덩다(暑)
- ③ 낫다(愈) ④ 놀다(遊)

유형 형태론 / 품사 /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의 구분

해설

‘놀다(遊)’는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용언 어간 받침 ‘ㄹ’은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ㄹ’인 어미(관형사형 어미 ‘-ㄹ’, 받침 ‘-ㄹ’로 시작하는 어미), 종결어미 ‘-오’ 앞에서 탈락하지만, 이것은 같은 음운 조건하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답풀이

- ① 묻다(問): ‘질문하다’라는 뜻의 ‘묻다’는 ‘ㄷ 불규칙용언’으로, ‘물어, 물어서, 물었다’와 같이 활용한다.
- ② 덩다(暑): ‘온도가 높다’라는 뜻의 ‘덩다’는 ‘ㅂ 불규칙용언’으로, ‘더워, 더워서, 더웠다’와 같이 활용한다.
- ③ 낫다(愈):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는 ‘ㅅ 불규칙용언’으로 ‘나아, 나아서, 나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정답 ④

09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2019 기상직 9급

| 보기 |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① ㉠: 기르다 ㉡: 먹히다
- ② ㉠: 비우다 ㉡: 먹었다
- ③ ㉠: 정답다 ㉡: 귀엽다
- ④ ㉠: 앓되다 ㉡: 드높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어근과 어간의 구분

해설

'기르다'의 어간과 어근이 모두 '기르-'이므로, '기르다'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에 속한다. '먹히다'는 '먹(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말로, 어간은 '먹히-', 어근은 '먹-'이다. 따라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오답풀이

- ② • 비우다: '비(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한 말로, 어간은 '비우-', 어근은 '비-'이다. 따라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 먹었다: '먹(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한 말로, 어간과 어근이 모두 '먹-'이므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에 속한다.
- ③ • 정답다: '정(情)'에 접미사 '-답(다)'가 결합한 말로, 어간은 '정답-', 어근은 '정'이다. 따라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 귀엽다: 어간과 어근이 모두 '귀엽-'으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에 속한다.
- ④ • 앓되다: '되(다)'에 접두사 '앓-'이 결합한 말로, 어간은 '앓되-', 어근은 '되-'이다. 따라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 드높다: '높(다)'에 접두사 '드-'가 결합한 말로, 어간은 '드높-', 어근은 '높-'이다. 따라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정답 ①

10 <보기>의 ㉠~㉣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9 기상직 9급

| 보기 |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또는 관형사 등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

㉠ 긴 이불을 팔다.
 ㉡ 한 이불을 덮다.
 ㉢ 저 이불을 빨다.
 ㉣ 새 이불을 사다.

- ① ㉠
- ② ㉡
- ③ ㉢
- ④ ㉣

유형 형태론 / 품사 / 용언과 관형사의 구분

해설

'㉠긴'은 형용사 '길다'의 어간 '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 결합한 것이다. '긴'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으로,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②, ③, ④의 '㉡한', '㉢저', '㉣새'는 모두 관형사이다.

정답 ①

11 밑줄 친 단어 중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기상직 9급

- ① 양쪽 채가 수평이 되도록 들어라.
- ② 무를 채 쳐서 김치를 담그는 데 썼다.
- ③ 나는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잠시 어정거렸다.
- ④ 황제의 손에는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구분

해설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이다. 의존명사는 관형어 없이 문장에서 쓰이지 못한다.

오답풀이

- ① 채: 자립명사이다. '1. 발구, 달구지, 수레 따위의 앞쪽 양옆에 댄 긴 나무, 2. 가마, 들것, 목도 따위의 앞뒤로 양옆에 대서 메거나 들게 되어 있는 긴 나무 막대기'를 뜻한다. 이 문장에서는 2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채: 자립명사이다. '야채나 과일 따위를 가늘고 길쭉하게 잘게 썬 일, 또는 그 야채나 과일'을 뜻한다.
- ④ 채: 부사.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정답 ③

1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가직 7급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접미사의 기능 파악

해설

'정답게'는 '정(情)'에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답(다)'가 결합한 '정답다'의 활용형이다. 접미사 '-답(다)'가 결합하여 명사 '정'을 '정답다'라는 형용사로 바꾼 것이다.

오답풀이

- ① '보기'가 '황금'이라는 목적어를 풀이하므로, '보기'는 '보(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한 것이다.
- ③ '크기'가 '옥수수 알'이라는 주어를 풀이하므로, '크기'는 '크(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한 것이다.
- ④ '낚시질'은 '낚시'에 접미사 '-질'이 결합한 것이다. '낚시'와 '낚시질' 모두 명사이므로, '-질'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정답 ②

13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하)

-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유형 형태론 / 품사 / 선어말어미의 기능

해설

'가겠다고'의 '-겠-'은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오답풀이

- ①, ②, ④의 '-겠-'은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정답 ③

14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 서울시 7급(하)

| 보기 |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는다.
-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유형 형태론 / 품사 / 동사의 특징

해설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의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 ③의 명령형 종결어미 '-어라', ④의 청유형 종결어미 '-자'는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정답 ②

1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상)

| 보기 |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 (가) 알-: 알+는 → [아:는]
- (나) 안-: 안+고 → [안:꼬]
- (다) 아름답-: 아름답+은 → [아름다운]
- (라) 먹-: 먹+는 → [멍는]

- ① (가)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② (나)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③ (다)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④ (라)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유형 형태론 / 형태소 /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해설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는 것은 예외 없이 일어나는 자동적 교체에 속한다.

오답풀이

- ② 용언 어간 받침소리 ‘ㄴ’ 뒤의 ‘ㄱ’은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접미사 ‘-기-’가 왔을 때에는 경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또한 ‘ㄴ’이 어간의 받침소리가 아닐 때에는 뒤의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예외 없이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라고 할 수 없다.
- ③ ‘ㅂ’ 뒤의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것은 ‘ㅂ 불규칙용언’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자동적 교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19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상)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조사의 구분

해설

③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무척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과’가 접속 조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②, ④의 ‘과’, ‘하고’, ‘와’는 모두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정답 ③

20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하)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통용

해설

‘백을’의 ‘백’은 ‘수사’이다. ‘백 말’의 ‘백’은 ‘관형사’가 맞다.

오답풀이

- ①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서는 ‘조사’로 쓰인다.
- ② 용언 앞에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아니’는 부사,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인 ‘아니’는 ‘감탄사’이다.
- ④ 접미사 ‘-적’이 결합한 단어는 격조사와 결합하면 ‘명사’,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이다.

정답 ③

나의 채점표

국어 문법[2회]

번호	정답	체크		난도	출제 영역		
		○	×		대분류	중분류	출제 키워드
1	②			상	음운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의 개수
2	④			상	형태론	품사	불규칙활용의 구분
3	④			하	형태론	품사	규칙용언과 불규칙용언의 구분
4	②			중	형태론	품사	품사의 구분, 품사의 통용
5	③			중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6	②			상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한자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조
7	①			중	형태론	형태소	형태소의 개수
8	④			중	형태론	품사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의 구분
9	①			중	형태론	품사	어근과 어간의 구분
10	①			중	형태론	품사	용언과 관형사의 구분
11	③			중	형태론	품사	품사의 구분
12	②			중	형태론	품사	접미사의 기능 파악
13	③			중	형태론	품사	선어말어미의 기능
14	②			하	형태론	품사	동사의 특징
15	④			상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16	②			중	형태론	형태소	형태소의 개수
17	②④			중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18	①			상	형태론	형태소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19	③			중	형태론	품사	조사의 구분
20	③			상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점 개념

0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 서울시 9급(하)

- 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관형사와 부사의 구분

해설

‘갖은’은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라는 뜻의 관형사이다. ②, ③, ④는 모두 부사이다.

오답풀이

- ② ‘바로’는 체언까지 수식할 수 있는 부사이다.

정답 ①

02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2018 서울시 9급(하)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해설

용언이 두 개가 연속되었을 때, 두 번째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면서 원래 문장에 쓰인 의미와 달라지지 않으면 두 번째 용언도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①에서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라는 문장이 성립하고, 이때의 ‘버렸다’가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의 ‘버렸다’처럼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버렸다’는 본용언이다.

오답풀이

- ② ‘척하다’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뜻하는 보조용언이다.
- ③ ‘본다’가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뜻하는 보조용언이다.
- ④ ‘간다’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뜻하는 보조용언이다.

정답 ①

03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상)

- ① 형용사 ‘기쁘다’에 동사 파생접미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 ‘기뻐하다’가 생성된다.
- ② ‘시누이’와 ‘선생님’은 접미파생명사들이다.
- ③ ‘빚나가다’와 ‘공부하다’는 합성동사들이다.
- ④ ‘한여름’은 단일명사이다.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파생어 · 합성어의 형성 구조

오답풀이

- ② ‘시누이’는 어근 ‘누이’에 ‘남편의’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시(嫗)-’가 결합한 접두파생명사이다. ‘선생님’은 어근 ‘선생’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이 결합한 접미파생명사이다.
- ③ ‘빚나가다’는 어근 ‘나가다’에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빚-’이 결합한 접두파생동사이며, ‘공부하다’는 어근 ‘공부’에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접미파생동사이다.
- ④ ‘한여름’은 어근 ‘여름’에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이 결합한 접두파생명사이다.

정답 ①

04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상)

-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이다.
-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형태소’이다.
-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형태소’이다.
-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형태소’이다.

유형 형태론 / 형태소 / 형태소의 구분

해설

동사의 어간은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이다. 명사는 ‘자립형태소’가 맞다.

정답 ②

05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 서울시 9급(상)

- ①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 ②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 ③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 ④ 얼굴도 볼 견 내일 만나자.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통용

해설

‘겸’은 ‘1.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2.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다. 이 문장에서는 2의 뜻으로 쓰였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이다.

오답풀이

- ① 비교적: ‘비교’에 접미사 ‘-적(的)’이 결합한 것으로 ‘편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 ② 아니: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로 ‘부사’이다.
- ③ 보다: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뜻의 ‘부사’이다.

정답 ④

06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 기상직 9급

- ① 글쎄, 그 일은 나도 잘 모르겠어.
- ②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 ③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 ④ 오월로 접어든 산골짜기의 날씨는 이제야 겨우 봄기운이 느껴진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부사와 감탄사의 구분

해설

‘글쎄’는 감탄사로, ‘1.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2.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말.’이다.

오답풀이

- ②, ③, ④는 모두 부사이다.

정답 ①

07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기상직 9급

어제 우리는 둘러앉아 군밤과 밤고구마를 먹었다.

- ① 이 문장에서 파생어는 1개이다.
- ② 이 문장에서 복합어는 3개이다.
- ③ 이 문장은 6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이 문장은 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단어 형성 방식 / 단어의 개수 파악,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해설

제시된 문장에서 파생어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② 제시된 문장에서 ‘둘러앉아’, ‘군밤’, ‘밤고구마’는 모두 합성어이므로, 복합어는 3개이다.
- ③ 제시된 문장은 ‘어제’, ‘우리는’, ‘둘러앉아’, ‘군밤과’, ‘밤고구마를’, ‘먹었다’의 6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제시된 문장은 ‘어제(부사)’, ‘우리(대명사)’, ‘는(조사)’, ‘둘러앉아(동사)’, ‘군밤(명사)’, ‘과(조사)’, ‘밤고구마(명사)’, ‘를(조사)’, ‘먹었다(동사)’의 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①

08 ㉠~㉣ 중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 묶인 것은? 2018 기상직 9급

- ㉠ 음식을 먹을 만큼 담아라.
눈물이 날 만큼 고향이 그리웠다.
- ㉡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쟁반에 사과 다섯 개가 있다.
- ㉢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발이 커서 신발이 맞지 않는다.
- ㉣ 그는 충분히 잡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허리가 아파 바르게 누워 자기가 어렵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동용

해설

- ㉠ 음식을 먹을 만큼 담아라.
→ 의존명사.
눈물이 날 만큼 고향이 그리웠다.
→ 의존명사.
⇒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올 때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 결합되어 있을 때는 ‘조사’이다.
- ㉡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 수사.
쟁반에 사과 다섯 개가 있다.
→ 관형사.
⇒ 수를 나타내는 말 중, ‘다섯’부터는 조사와 결합될 때는 수사, 뒤의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이다.
- ㉢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 동사.
발이 커서 신발이 맞지 않는다.
→ 형용사.
⇒ ‘크다’가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라는 뜻일 때는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일 때는 형용사이다.
- ㉣ 그는 충분히 잡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동사.
허리가 아파 바르게 누워 자기가 어렵다.
→ 동사.
⇒ ‘잡’은 ‘충분히’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자(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ㅁ’이 결합한 동사이다. ‘자기’는 문장의 생략된 주어를 풀이해 주고 있으므로, 역시 ‘자(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한 동사이다.

정답 ②

09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그 예를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하)

- 보기**
- (가)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 (나)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다)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라)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다.

- ① (가)-짓다, 푸다, 눕다
- ② (나)-깨닫다, 춥다, 씻다
- ③ (다)-푸르다, 하다, 노르다
- ④ (라)-좋다, 파랗다, 부엌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불규칙활용의 구분

해설

- 불규칙활용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므로, ‘-아/-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해 보면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푸르(다)+-어 → 푸르러.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 하(다)+-아 → 하여.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 용언이다.
 - 노르(다)+-어 → 노르러.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오답풀이

- ① • 짓(다)+-어 → 지어.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ㅆ’ 불규칙 용언으로 (가)에 해당된다.
- 푸(다)+-어 → 퍼. 어간의 ‘ㅍ’가 탈락하는 ‘ㅍ’ 불규칙 용언으로 (가)에 해당된다.
- 눕(다)+-어 → 누워. 어간의 ‘ㅂ’이 ‘ㄱ’로 바뀌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 (나)에 해당된다.
- ② • 깨닫(다)+-아 → 깨달아.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 (나)에 해당된다.
- 춥(다)+-어 → 추워. 어간의 ‘ㅂ’이 ‘ㅍ’로 바뀌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 (나)에 해당된다.
- 씻(다)+-어 → 씻어.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④ • 좋(다)+-아 → 좋아.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파랗(다)+-아 → 파래.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ㅎ’ 불규칙 용언으로 (라)에 해당된다.
- 부엌(다)+-어 → 부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ㅎ’ 불규칙 용언으로 (라)에 해당된다.

정답 ③

10 '의존명사-조사'의 짝이 아닌 것은?

2018 서울시 7급(하)

- ① { 할 만큼 했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했다.
- ② {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 ③ {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너만 와라.
- ④ {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통용

해설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서는 '조사'이다. '할 만큼'의 '만큼'의 '의존명사'이다. 그러나 '먹으리만큼'에는 '만큼'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 '-을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리만큼'이 결합한 것이다. '먹으리'가 체언이 아니므로, '먹으리' 뒤의 '만큼'은 조사가 될 수 없다.

오답풀이

- ②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서는 '조사'이다. '들어오는 대로'의 '대로'는 '의존명사'이며, '멋대로'의 '대로'는 '조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멋대로'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제 마음대로'라는 뜻의 부사로 실려 있으나 '네 멋대로'는 문장 구조상 부사 '멋대로'가 쓰인 것이 아니라 관형어 '네'가 '멋'을 수식하고 '대로'는 '멋'에 결합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 ③ '만'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 쓰일 때는 '조사'이다. '10년 만에'의 '만'은 '의존명사'이며, '너만'의 '만'은 '조사'이다.
- ④ '뿐'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서는 '조사'이다. '할 뿐이다'의 '뿐'은 '의존명사'이며, '다섯뿐'의 '뿐'은 '조사'이다.

정답 ①

11 밑줄 친 단어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하)

-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보조용언의 세부적 의미

해설

'못하다'가 '-지 못하다'의 꼴로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동사 뒤에서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형용사 뒤에서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보조형용사로 쓰인다. '똑똑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똑똑하지'라는 형용사 뒤에서 보조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④는 모두 보조동사로 쓰인 것이다.

정답 ③

12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하)

-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조사이다.
-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조사의 세부적 의미

해설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 대명사 '그'에 보조사 '는'이 붙어 '그는' 전체가 주어가 된 것이다. 주어가 되는 말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주격 조사인 것이 아니라 체언에 보조사가 붙어서도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답풀이

- ① '에서'가 집단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말 뒤에 결합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때에는 주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 ③ '가'가 '되다', '아니다' 앞에서 그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어에 결합되어 있을 때는 보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 ④ '과'가 비교 대상에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부사격 조사, '과'로 이어진 부분을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을 때에는 접속 조사로 쓰인 것이다.

정답 ②

13 국어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하)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기능

해설

‘겨우, 바로, 아주, 특히’ 등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들이 있다.

오답풀이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한다.
- ② ‘고향 나무’의 ‘고향’처럼 명사가 관형어로 쓰여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④ ‘빨리도’의 ‘도’처럼 보조사는 부사 뒤에도 올 수 있다.

정답 ③

14 ‘살짝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같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상)

- ① 덮밥 ② 얼룩소
- ③ 딱딱새 ④ 섞어찌개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합성어의 형성 구조

해설

‘살짝곰보’는 ‘살짝(부사 어근)+곰보(명사 어근)’의 구조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딱딱새’ 역시 ‘딱딱(부사 어근)+새(명사 어근)’의 구조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 ① 덮밥: ‘덮(다)’(용언의 어간)+밥(명사 어근) → 비통사적 합성어.
- ② 얼룩소: 얼룩(명사 어근)+소(명사 어근) → 통사적 합성어.
- ④ 섞어찌개: ‘섞(다)’(용언의 어간)+어(연결어미)+찌개(명사 어근) → 비통사적 합성어.

정답 ③

15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상)

- ① ‘-(으)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② ‘-더라도’는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 ③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 ④ ‘-(으)ㄴ들’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의문문이어야 한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어미의 세부적 의미

해설

‘-거든’은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혹시 길이 미끄럽거든 지하철을 이용해라’와 같이 후행절에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나는) 일찍 떠나려고 (나는)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와 같이 쓰인다. 이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② ‘-더라도’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예) •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 무슨 일이 있겠더라도 올해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 ④ ‘-(으)ㄴ들’은 ‘-ㄴ다고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어떤 조건을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나타낸다. ‘고추가 매운들 시집살이보다 더 매울까?’와 같이 쓰이며, 이처럼 후행절이 의문문의 형태로 쓰이면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면서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이 된다.

정답 ③

16 밑줄 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18 서울시 7급(상)

-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 ②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 ③ 새 옷을 입어 보았다.
- ④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해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의 ‘가셨다’는 ‘어머니가 가셨다.’와 같이 단독으로 써도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면서, 원래 문장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본용언이다. ②, ③, ④는 모두 보조용언이다.

오답풀이

- ② ‘못하다’는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 ③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 ④ ‘대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정답 ①

17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하)

-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통용

해설

‘비교적’은 ‘비교’에 접미사 ‘-적(的)’이 붙은 단어로, 명사, 관형사, 부사로 두루 쓰인다. ‘-적(的)’이 붙은 말은 그 말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명사, 조사 결합 없이 뒤의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 조사 결합 없이 뒤의용언을 꾸미면 부사이다.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과 ‘비교적 낮은’의 ‘비교적’은 각각 ‘편리한’과 ‘낮은’을 꾸미고 있으므로, 모두 부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잘못’은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명사, 조사 결합 없이 뒤의 용언을 꾸미면 부사이다. ‘잘못입니다’의 ‘잘못’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입니다’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명사이고, ‘잘못 적용하여’의 ‘잘못’은 ‘적용하여’를 꾸미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 ② ‘대로’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이면 의존명사, 체언 뒤에 결합되어 있으면 조사이다. ‘도착하는 대로’의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였으므로 의존명사이고, ‘것대로’의 ‘대로’는 명사 ‘것’ 뒤에 바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조사이다.
- ④ ‘이’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대명사, 조사 결합 없이 뒤의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이 사과가’의 ‘이’는 조사 결합 없이 뒤의 명사 ‘사과’를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이보다’의 ‘이’는 뒤에 조사 ‘보다’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대명사이다.

정답 ③

1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하)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불규칙활용의 구분

해설

- 휘두르다: '휘두르다(이리저리 마구 내두르다.)'의 활용형으로, '휘둘러', '휘둘렀다'와 같이 활용하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 자른다: '자르다(동강을 내거나 끊어 내다.)'의 활용형으로, '잘라', '잘랐다'와 같이 활용하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오답풀이

- ① • 누르니: '누르다(황금이나 놋쇠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탁하다.)'의 활용형으로, '누르러', '누르렀다'와 같이 활용하는 '러' 불규칙용언이다.
• 오르기: '오르다(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의 활용형으로, '올라', '올랐다'와 같이 활용하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② • 이르기: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의 활용형으로, '이르러', '이르렀다'와 같이 활용하는 '러' 불규칙용언이다.
• 구르기: '구르다(바퀴처럼 돌면서 옮겨 가다.)'의 활용형으로, '굴러', '굴렀다'와 같이 활용하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④ • 부른다: '부르다(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의 활용형으로, '불러', '불렀다'와 같이 활용하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라는 뜻으로, '푸르러', '푸르렀다'와 같이 활용하는 '러' 불규칙용언이다.

정답 ③

19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하)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②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③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복합어의 형성 구조

해설

'회덮밥'의 '덮밥'은 '덮다'의 어간 '덮-'에 어근 '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합성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정답 ②

20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2017 국가직 9급(상)

- ① 갯염기 ② 갯타자
③ 갯기침 ④ 갯행군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접두사의 세부적 의미

해설

'갯기침'의 '갯-'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①, ②, ③의 '갯(強)-'은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한자 '強(강할 강)'에서 온 말이다.

정답 ③

나의 채점표

국어 문법[3회]

번호	정답	체크		난도	출제 영역		
		○	×		대분류	중분류	출제 키워드
1	①			중	형태론	품사	관형사와 부사의 구분
2	①			중	형태론	품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3	①			중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파생어·합성어의 형성 구조
4	②			중	형태론	형태소	형태소의 구분
5	④			상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6	①			중	형태론	품사	부사와 감탄사의 구분
7	①			중	형태론	품사, 단어 형성 방식	단어의 개수 파악,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8	②			상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9	③			중	형태론	품사	불규칙활용의 구분
10	①			상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11	③			상	형태론	품사	보조용언의 세부적 의미
12	②			중	형태론	품사	조사의 세부적 의미
13	③			중	형태론	품사	품사의 기능
14	③			중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합성어의 형성 구조
15	③			상	형태론	품사	어미의 세부적 의미
16	①			중	형태론	품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17	③			중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18	③			중	형태론	품사	불규칙활용의 구분
19	②			상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복합어의 형성 구조
20	③			중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접두사의 세부적 의미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점 개념

01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2017 지방직 9급(하)

‘-ㅁ/-음’은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 ②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에 매달렸다.
- ③ 태산이 높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 ④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이 애국자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의 구분

해설

‘높음’은 ‘태산이’라는 주어에 서술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 ‘높다’의 ‘높-’에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용언은 주어나 서술어를 풀이해 주거나, 선어말어미가 결합되어 있거나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것은 이상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지 않거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오답풀이

- ① ‘수줍음’은 ‘많은’의 주어 역할을 하므로 서술성이 없다. 따라서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이다.
- ② ‘죽음’은 ‘각오하고’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서술성이 없다. 따라서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이다.
- ④ ‘젊음’은 ‘바친’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서술성이 없다. 따라서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명사이다.

정답 ③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하)

- 형님은 ㉠자기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 ① ㉠과 ㉡은 모두 형님을 가리킨다.
- ② ㉠은 1인칭이고 ㉡은 2인칭이다.
- ③ ㉡은 ㉠보다 높임 표현이다.
- ④ ㉢은 ㉠과 달리 형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대명사의 세부적 의미

해설

‘㉠자기’와 ‘㉡당신’ 모두 문장의 ‘형님’을 다시 가리키는 3인칭 재귀대명사이다.

오답풀이

- ① ㉠, ㉡은 모두 ‘형님’을 가리키는 3인칭 재귀대명사이다.
- ③ 재귀대명사 ‘당신’은 ‘자기’의 높임 표현이다.
- ④ ‘그’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형님’ 이외의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정답 ②

03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상)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유형 형태론 / 품사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해설

㉠, ㉡, ㉤은 모두 형용사로, 각각 '흐드러진다', '충만하다', '없다'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는-'과 결합할 수 없다.

- ㉠흐드러지게: '1.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 2. 매우 흐뭇하거나 푸지다'라는 뜻의 '흐드러지다'의 활용형이다.
- ㉡충만한: '한껏 차서 가득하다'라는 뜻의 '충만하다'의 활용형이다.
- ㉤없는: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라는 뜻의 '없다'의 활용형이다.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예외적으로 현재를 뜻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다.

오답풀이

㉢, ㉣은 모두 동사로, 각각 '찍는다', '설레다'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는-'과 결합할 수 있다.

- ㉢찍은: '어떤 대상을 촬영기로 비추어 그 모양을 옮기다.'라는 뜻의 '찍다'의 활용형이다.
- ㉣설레는: '1.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 2.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움직이다, 3. 물 따위가 설설 끓거나 일렁거리다'라는 뜻의 '설레다'의 활용형이다.

정답 ②

0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상)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आरो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대명사의 세부적 의미

해설

㉢과 ㉣은 모두 '할머니'를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당신'은 앞의 '할머니'를 높여 이르는 3인칭 재귀대명사이다.

오답풀이

- ① '㉠그쪽'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고, '㉢저'는 '나'의 낮춤말로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 '㉢저'를 포함하지만 '㉣할머니'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 '㉤본인'은 앞의 '할머니'를 가리키는 3인칭 재귀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정답 ③

05 <보기>에 사용된 단어의 개수와 형태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2017 기상직 9급

| 보기 |

이 고기는 매우 기름지다.

- ① 10 ② 1
- ③ 12 ④ 13

유형 형태론 / 품사, 형태소 / 단어의 개수, 형태소의 개수

해설

‘이 고기는 매우 기름지다’는 ‘이(관형사)’, ‘고기(명사)’, ‘는(조사)’, ‘매우(부사)’, ‘기름지다(형용사)’의 5개 단어로 분석된다. 또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고기/는/매우/기름/지/다’의 7개로 분석되므로 단어와 형태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12이다.

정답 ③

06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상)

-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 ② 검붉다, 굳세다, 밤낮
- ③ 부슬비, 늦더위, 굶주리다
-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

해설

- 부슬비: 부슬(부사)+비(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늦더위: ‘늦(다)’(용언의 어간)+더위(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굶주리다: ‘굶(다)’(용언의 어간)+주리다(용언) → 비통사적 합성어.

오답풀이

- ① • 힘들다: 힘(주어)+들다(서술어) → 통사적 합성어.
• 작은집: ‘작(다)’(용언의 어간)+-은(관형사형 전성어미)+집(명사) → 통사적 합성어.
• 돌아오다: ‘돌(다)’(용언의 어간)+-아(연결어미)+오다(용언) → 통사적 합성어.
- ② • 검붉다: ‘검(다)’(용언의 어간)+붉다(용언) → 비통사적 합성어.
• 굳세다: ‘굳(다)’(용언의 어간)+세다(용언) → 비통사적 합성어.
• 밤낮: 밤(명사)+낮(명사) → 통사적 합성어.
- ④ • 빛나다: 빛(주어)+나다(서술어) → 통사적 합성어.
• 보살피다: ‘보(다)’(용언의 어간)+살피다(용언) → 비통사적 합성어.
• 오르내리다: ‘오르(다)’(용언의 어간)+내리다(용언) → 비통사적 합성어.

정답 ③

07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 ① {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② {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③ {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④ {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해설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문장이 성립하더라도 원래 문장의 의미와 달라지면 보조용언,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면서도 원래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면 본용언이다. ①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책도 한번 보거라’라는 문장이 성립하지만 ‘읽어 보거라’의 ‘보거라’가 시험 삼아 해 본다는 의미인 반면 ‘이 책도 한번 보거라’의 ‘보거라’는 눈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원래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의 ‘보거라’는 보조 용언이다. ①의 두 번째 문장에서 ‘밖의 날씨가 보다.’라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다’는 보조용언이다.

오답풀이

- ② 첫 번째 문장에서 ‘유리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성립하지만 ‘깨 먹었다’의 ‘먹었다’가 앞말의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 ‘유리를 먹었다’의 ‘먹었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낸다는 의미이므로 ‘먹었다’는 보조용언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음식물을 먹자’라는 문장이 성립하고 이때의 ‘먹자’는 ‘끓여 먹자’의 ‘먹자’처럼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낸다는 의미이므로 ‘먹자’는 본용언이다.
- ③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드리렴’이라는 문장이 성립하고 이때의 ‘드리렴’이 ‘가져다 드리렴’의 ‘드리렴’처럼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라는 의미인 ‘주다’의 높임말로 쓰였으므로 ‘드리렴’은 본용언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드린다’라는 문장이 성립하지만 ‘일을 드린다’의 ‘드린다’가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라는 의미인 ‘주다’의 높임말로 쓰인 반면 ‘거들어 드린다’의 ‘드린다’는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므로 ‘드린다’는 보조용언이다.
- ④ 첫 번째 문장의 ‘말고’는 앞에 다른 용언이 없으므로 본용언이다. 용언이 두 개 이상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말았다’라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말았다’는 보조용언이다.

정답 ①

08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2017 서울시 9급

| 보기 |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 ② 금지곡(禁止曲)
- ③ 한자음(漢字音)
- ④ 핵폭발(核爆發)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해설
<보기>의 단어는 모두 파생어이다. 각각 접사 '개-', '헛-', '-질', '-개'가 결합되어 있다. '건어물(乾魚物)'은 '생선, 조개류 따위를 말린 식품.'을 뜻하는 말로, 이것 역시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건(乾)-'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②, ③, ④는 모두 합성어이다.

정답 ①

09 문장의 밑줄 친 부분 중 품사가 다른 것은? 2017 기상직 9급

- ① 어머니는 당신께서 기른 채소를 종종 드셨어.
- ② 벌써 거기까지 갔을 리가 없지 않니?
- ③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참 시설이 좋아.
- ④ 대영아, 조기 한 두름만 사오너라.

유형 형태론 / 품사 / 명사와 대명사의 구분

해설
'당신'은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3인칭 재귀대명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명사이다.

정답 ①

10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 ①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 ②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 ③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 ④ 노장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해설
'많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② 밝으면: 동사. '밝다(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활용형이다.
③ 키우신다: 동사. '크다(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사동사 '키우다'의 활용형이다.
④ 늙지: 동사. '늙다(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의 활용형이다.

정답 ①

11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의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 보기 |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다.

- ① '선생님께서'의 '께서', '우리들에게'의 '들', '주신다'의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② '선생님께서'의 '께서', '숙제를'의 '를', '주신다'의 '다'는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③ '선생님께서'의 '님', '숙제를'의 '숙제', '주신다'의 '주'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④ '선생님께서'의 '선생', '우리들에게'의 '우리', '숙제를'의 '숙제'는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유형 형태론 / 형태소 / 형태소의 구분

해설
'-님'은 높임의 접미사로,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주신다'의 '주(다)'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정답 ③

12 밑줄 친 단어가 같은 품사로 묶인 것은?

2017 국가직 7급(상)

- ①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세요.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이다.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 ③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
- ④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
이 그림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통용

해설

‘보기’는 ‘나’를 서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다’의 어간 ‘보-’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한 동사이다. ‘보았다’ 역시 동사이다.

오답풀이

- ① • 다른 물건: 관형사.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라는 뜻이다.
• 성질이 다른: 형용사. ‘다르다(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활용형이다.
- ③ • 사과는 크고: 형용사. ‘크다(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의 활용형이다.
• 아이가 크면서: 동사. ‘크다(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의 활용형이다.
- ④ • 한국적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명사이다.
• 한국적 정취: 명사 ‘정취’를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정답 ②

13 다음 글을 읽고 ㉠과 ㉡의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7 기상직 7급

‘있다, 없다’는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시하여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에는 ‘-는’이 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있다, 없다’는 ‘있는, 없는’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둘이 의미상으로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동사·형용사 품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형용사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품사로 존재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단어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있다’는 ‘있는다, 있어라’라는 표현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없다’는 ‘*없는다, *없어라’가 불가능하니,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 판단된다. 학교 문법에서는 의미상의 분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있다, 없다’ 둘 다 형용사로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하긴, ‘있다’를 자세히 보면 ㉠동사로서의 ‘있다’와 ㉡형용사로서의 ‘있다’로 나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 ② ㉠ 오늘 회식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세요.
㉡ 그는 있는 집 자손이다.
- ③ ㉠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
㉡ 우리 모두 함께 있자.
- ④ ㉠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 그는 서울에 있다.

유형 형태론 / 품사 / 품사의 통용

해설

㉠의 ‘있으면’은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이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 ① ㉠의 '있다'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라는 뜻의 형용사이고, ㉡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 ② ㉠의 '있으니'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이다.'라는 뜻의 형용사이고, ㉡의 '있는'도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③ ㉠의 '있어라'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의 '있자'도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정답 ④

14 다음 중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 군세다, 날뛰다
- ② 잠보, 점쟁이, 일꾼, 덮개, 넓이, 조용히
- ③ 지붕, 군것질, 선생님, 먹히다, 거뭇다, 고프다
- ④ 맨손, 군소리, 풋사랑, 시누이, 빗나가다, 새파랗다

유형 형태론 / 단어 형성 방식 /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해설

'손목'은 '손+목', '눈물'은 '눈+물', '할미꽃'은 '할미+꽃', '어깨동무'는 '어깨+동무', '군세다'는 '군(다)+세다', '날뛰다'는 '날(다)+뛰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③, ④의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 ② '잠보'는 '잠+-보', '점쟁이'는 '점+-쟁이', '일꾼'은 '일+-꾼', '덮개'는 '덮(다)+-개', '넓이'는 '넓(다)+-이' '조용히'는 '조용+-히'의 구조로 되어 있다.
- ③ '지붕'은 '집+-붕', '군것질'은 '군+-것+-질', '선생님'은 '선생+-님', '먹히다'는 '먹+-히+-다', '거뭇다'는 '검+-열+-다', '고프다'는 '끓+-브+-다'의 구조로 되어 있다.
- ④ '맨손'은 '맨+-손', '군소리'는 '군+-소리', '풋사랑'은 '풋+-사랑', '시누이'는 '시+-누이', '빗나가다'는 '빗+-나가다', '새파랗다'는 '새+-파랗다'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①

통사론

15 안긴문장이 없는 것은? 2020 국가직 9급

- ① 나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고대한다.
- ② 착한 영호는 언제나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 ③ 해진이는 울산에 살고 초희는 광주에 산다.
- ④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일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유형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의 구분

해설

'해진이는 울산에 살고 초희는 광주에 산다'는 '해진이는 울산에 산다', '초희는 광주에 산다' 두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 ①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명사절로 안긴문장이다.
- ② '(영호가) 착한'이 관형절로 안긴문장이다. '(영호가) 착한'은 중복되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 ④ '내일 가족 여행을 가자고'가 인용절로 안긴문장이다.

정답 ③

16 밑줄 친 부분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20 국가직 7급

- ①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우리 집 옆에 있다.
- ② 저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 ③ 그 화가는 붓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④ 햇불을 추켜든 사람들이 골짜기를 살살이 뒤졌다.

유형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관형절의 구분

해설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은 관형절이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동격 관형절이다. ①, ③, ④는 모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안은문장과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관계 관형절은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내의 한 성분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풀이

- ① '서점'이 관형절 내에서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샀다'에서와 같이 부사어로 쓰인다.
- ③ '땀'이 관형절 내에서 '땀이 이마에 흐른다'에서와 같이 주어로 쓰인다.
- ④ '사람들이' '사람들이 햇불을 추켜들었다'에서와 같이 주어로 쓰인다.

정답 ②

1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9급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높임법의 구분

해설
‘하셨습니다’의 종결어미 ‘-습니다’는 아주높임의 하십시오체에 쓰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또 ‘께서’, ‘하셨습니다’에 쓰인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께’와 ‘드리라’를 통해 객체 ‘아주머니’를 높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들어가셨다’의 종결어미 ‘-다’는 아주낮춤의 해라체에 쓰이는 것으로 상대를 낮춘 것이다. 따라서 상대를 높인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께서’, ‘들어가셨다’에 쓰인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 ‘아버지’를, ‘모시고’를 통해 객체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② ‘될까요?’의 보조사 ‘요’는 두루높임의 해요체에 쓰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고,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바랍니다’의 종결어미 ‘-습니다’는 아주높임의 하십시오체에 쓰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또 ‘께서’, ‘주시기’에 쓰인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 ‘주민 여러분’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정답 ③

18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9급(하)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유형 통사론 / 문장 성분 / 성분의 구분

해설
‘마음만은’은 ‘마음’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주어이다. ①, ③, ④는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목적어로 쓰였다.

정답 ②

19 <보기>를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기상직 9급

| 보기 |

뒹다 ㉠

(1) 때, 먼지, 녹 따위의 더러운 것을 없애거나 윤기를 내려고 거죽을 문지르다.

(2) 거죽의 물기를 훔치다.

	피동사	사동사
뒹다(1)	㉠뒹이다	㉡뒹이다
뒹다(2)	㉢뒹이다	㉣뒹이다

- ① ㉠: 얼룩이 깨끗이 뒹인 유리창을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 ② ㉡: 때밀이에게 아이의 몸을 뒹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 ③ ㉢: 그가 손으로 코를 문지르자 흐르던 콧물이 뒹였다.
- ④ ㉣: 식탁 위 우유가 깨끗하게 뒹이지 않았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피동·사동 표현

해설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사나 사동사가 될 때, 접미사가 결합한 말이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피동사, 목적어를 취하면 사동사로 쓰인 것이다. ㉢의 ‘뒹이지’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므로, 피동사로 쓰인 것이다. ‘뒹이다’가 ‘거죽의 물기를 훔치게 하다.’라는 뜻의 사동사로 쓰인 경우로, ‘아이들에게 바닥에 었질러진 물을 뒹였다.’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④

20 <보기> ㉠~㉣의 높임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기상직 9급

| 보기 |

㉠ 선생님께 여쭙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어제 그녀가 시립 미술관에 갔었니?
 ㉢ 네가 친구한테 휴대폰을 가져다주었구나.
 ㉣ 우리 학교에 가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합시다.

- ① ㉠에서는 격 조사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② ㉡은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고, 하계체 문장이다.
- ③ ㉢은 종결 어미에 ‘요’를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과 격식성 여부가 동일하다.
- ④ ㉣에 사용된 청유형 종결 어미 ‘-하시다’는 격식체 중 하오체 어미이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높임법

해설

㉡의 “갔었니?”가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대높임법 중 아주낮춤의 ‘해라체’가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격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인 ‘여쭙봐야’를 사용하여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부사어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을 실현한 것이다.
- ③ 종결어미 ‘-구나’에 ‘요’를 붙여 ‘-구나요’를 붙일 수 없으며, ㉠의 종결어미 ‘-니’에도 ‘-니요’라고 ‘요’를 붙일 수 없다. ㉢의 종결어미 ‘-구나’, ㉠의 종결어미 ‘-니’는 모두 격식체 중, 아주낮춤의 해라체가 실현된 것으로, 격식성 여부가 동일하다.

정답 ②

2022 9·7급 기태국어 Step2
기출분석

나의 채점표

국어 문법[4회]

번호	정답	체크		난도	출제 영역		
		○	×		대분류	중분류	출제 키워드
1	③			상	형태론	품사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의 구분
2	②			중	형태론	품사	대명사의 세부적 의미
3	②			상	형태론	품사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4	③			중	형태론	품사	대명사의 세부적 의미
5	③			중	형태론	품사, 형태소	단어의 개수, 형태소의 개수
6	③			중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
7	①			중	형태론	품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분
8	①			중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9	①			중	형태론	품사	명사와 대명사의 구분
10	①			상	형태론	품사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11	③			중	형태론	형태소	형태소의 구분
12	②			상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13	④			상	형태론	품사	품사의 통용
14	①			중	형태론	단어 형성 방식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15	③			중	통사론	문장의 짜임새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의 구분
16	②			중	통사론	문장의 짜임새	관형절의 구분
17	③			중	통사론	문법 요소	높임법의 구분
18	②			중	통사론	문장 성분	성분의 구분
19	④			중	통사론	문법 요소	피동 · 사동 표현
20	②			중	통사론	문법 요소	높임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점 개념

01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9 서울시 7급(하)

-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유형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관형절의 구분

해설

‘영수가 애쓴’은 생략된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④는 각각 ‘음식을’, ‘질문을’, ‘소문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정답 ③

02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상)

-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유형 통사론 / 문장 성분 / 성분의 구분

해설

‘아주’는 ‘새’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오답풀이

①, ③, ④는 모두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정답 ②

03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상)

| 보기 |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높임법의 종류 구분

해설

주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 ‘주셨다’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체’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객체 ‘영희’를 높이는 표현은 없으므로 객체 높임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객체’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셨다’의 종결어미 ‘-다’에서 상대 높임법이 나타난다. 다만, 상대 높임법 중, 아주낮춤의 해라체가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주체 ‘영희’를 높이는 표현은 없으므로, ‘-주체’로 표시해야 한다. 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드렸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은 나타난다. 따라서 ‘+객체’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드렸다’의 종결어미 ‘-다’에서 상대 높임법이 드러나므로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 ③ 주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 '주셨습니다'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체'로 표시해야 한다. 객체 '영희'를 높이는 표현은 없으므로 객체 높임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객체'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셨습니다'의 종결어미 '-습니다'에서 상대 높임법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 ④ 주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 '드리셨습니다'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체'로 표시해야 한다. 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주다'의 높임말 '드리다'의 활용형인 '드리셨습니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 또한 나타난다. 따라서 '+객체'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드리셨습니다'의 종결어미 '-습니다'에서 상대 높임법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정답 ①

04 <보기>를 바탕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9 기상직 9급

- | 보기 |**
- ㉠ 벤치에 앉은 그녀는 너무 예뻐다.
 - ㉡ 경찬이는 TV에서 만화를 보았다.
 - ㉢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 ㉣ 우리도 경전철이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이다.
- ② ㉡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4개이다.
- ③ ㉢을 보면 문장의 부속 성분인 부사어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④ ㉣에는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가 2개이므로 중복되는 주어를 생략해야 한다.

유형 통사론 / 성분 / 성분의 구분

오답풀이

- ① '너무'는 단순히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 ②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주어인 '경찬이는', 목적어인 '만화를', 서술어인 '보았다'의 3개이다.
- ④ '경전철이 언제 개통될지'가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이 절에서 '개통될지'의 주어는 '경전철이' 하나이다. '우리도'는 '모른다'의 주어로, 전체 문장에서 중복되는 주어는 없다.

정답 ③

05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상)

- | 보기 |**
- (가) 내가 책을 읽었다.
 -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 (다) 우리가 산을 봅시다.
 -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피동과 사동

해설

사동문에는 행위의 주체가 해당되는 문장 성분, 즉 행위를 시키는 주체인 주어가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반면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06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목적어가 아닌 것은?

2018 서울시 9급(상)

- ① 우리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 ② 사공들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 ③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않아 걱정이다.
- ④ 나는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유형 통사론 / 문장 성분 / 성분의 구분

해설

'건강하지를 않아'는 '건강하지를'은 본용언으로 '건강하지'에 '를'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결합한 것이다. '건강하지를'은 보조용언 '않아'와 함께 '서술어'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②.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 정답 ③

07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기상직 9급

| 보기 |

- ㉠ 아버지는 마음이 넓다.
- ㉡ 그 아이는 집으로 갔다.
- ㉢ 우리는 그가 담임 선생님임을 알았다.
- ㉣ 나는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가방을 뺐다.

- ① ㉠에서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는 다르다.
- ②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 ③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서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다르므로 생략되지 않았다.

유형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안은문장의 구조 분석

해설

㉣에는 '어머니가 가방을 선물로 주셨다'가 관형절로 안기면서 이 문장의 '가방을'이라는 목적어가 안은문장의 목적어 '가방을'과 같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오답풀이

- ① ㉠은 '마음이 넓다'라는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안은문장의 주어는 '아버지는'이며, 안긴문장의 주어는 '마음이'이므로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는 다르다.
- ② ㉡의 주어는 '아이', 서술어는 '갔다'로,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③ ㉢에는 '그가 담임 선생님임'이라는 명사절의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 ㉣에는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이라는 관형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정답 ④

08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7급

한국어의 피동 표현 중 '-어/아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것은 연결어미 '-어/아'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구성으로 통사적 피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아지다'가 피동의 의미보다는 '-게 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어떠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 ① 이 책이 잘 읽혀진다.
- ②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
- ③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 ④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피동 표현

해설

제시문에서 '-어/아지다'가 '과정화'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게 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선택지의 '-어/-아지다'가 결합한 부분에 '-게 되다'를 결합한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의미상 어떠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것을 뜻해야 한다.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에서 '-아지지'가 결합한 '가지지'에 '-게 되지'를 결합하면, '그 가게에 잘 가게 되지 않아요'라고 자연스럽게 쓰이며, '가게에 잘 가지 않는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과정화'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이 책이 잘 읽히게 된다'라고 썼을 때 부자연스럽다. '읽혀진다' 자체는 피동 접미사 '-히-'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이중 피동이며 비문이기도 하다.
- ② '방에 우유가 쏟게 됐다'라고 썼을 때 부자연스럽다.
- ④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쓰게 된다'라고 썼을 때 부자연스럽다.

정답 ③

09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
- ②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 하늘로 날렸다.
- ③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피동과 사동의 구분

해설

사동 표현에 쓰이는 사동사는 타동사로, 사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들려'는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를 들려 있다.'와 같이 쓸 수 없으므로, 피동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풀을) 뜯겼다'와 같이 쓸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은 '뜯다'의 사동사 '뜯기다'가 쓰인 사동 표현이다.
 - ②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와 같이 쓸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은 '날다'의 사동사 '날리다'가 쓰인 사동 표현이다.
 - ③ '태희는 반지마저(반지를)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와 같이 쓸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은 '보다'의 사동사 '보이다'가 쓰인 사동 표현이다.
- 정답 ④

10 밑줄 친 부사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하)

-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유형 통사론 / 성분 / 필수적 부사어의 구분

해설

'비겁하게'는 '굴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오답풀이

①, ③, ④의 부사어들을 단순히 용언을 꾸미는 역할만 하며,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④의 '마시다'의 경우,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이지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하는 서술어는 아니다.

정답 ②

11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하)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높임법의 구분

해설

- ㄷ: '여러분'이라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법 중, 아주높임을 쓴 것이다. '아이들을'이라는 목적어, 즉 객체를 높이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 ㄹ: '할머니를'이라는 목적어, 즉 객체를 높이기 위해 '모시고'라는 높임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 ㄱ: '할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가셨습니다'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쓰고 있다.
• ㄴ: '선생님'이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댁', '계십니다'라는 높임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 ② ㄱ, ㄴ, ㄷ 모두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ㄱ의 '가셨습니다'에서는 '-습니다'라는 아주높임의 종결어미가, ㄴ의 '계십니다'에서는 '-입니다'라는 아주높임의 종결어미가, ㄷ의 '주십시오'에서는 '-십시오'라는 아주높임의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ㄴ에서는 '댁'과 '계시다'라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으며, ㄷ에서는 '모시고'라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고 있다.

정답 ④

12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상)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객체+], [상대-]
- ② [주체+], [객체-], [상대+]
- ③ [주체-], [객체+], [상대+]
- ④ [주체+], [객체-], [상대-]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높임법의 구분

해설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에서, 주체인 ‘내가’를 높이는 주체 높임은 쓰이지 않았으므로 주체 높임은 ‘-’, 행위를 받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선생님에게’를 ‘선생님께’, ‘주었다’를 ‘드렸다’로 쓰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은 ‘+’로 표시해야 한다. 또 ‘숙희’라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말체인 아주 낮춤의 해라체 종결어미 ‘-다’를 쓰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은 ‘-’로 표시해야 한다.

정답 ①

13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유형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절(안긴문장)의 구분

해설

‘비가 오는’이 ‘소리’를 꾸미는 관형절이며, 이것은 그 자체로 필요한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②, ③, ④의 관형절은 그것이 꾸미는 체언이 원래 관형절에 있던 성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형절의 한 성분이 생략된 것이다.

오답풀이

- ② ‘철수는 새로 맞춘’이 ‘양복’을 꾸미는 관형절이며, ‘철수는 새로 양복을 맞췄다’는 문장이 관형절이 되면서 ‘양복’이 중복되어 관형절 내의 ‘양복을’이 생략된 것이다.
- ③ ‘나는 길에서 주운’이 ‘지갑’을 꾸미는 관형절이며, ‘나는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는 문장이 관형절이 되면서 ‘지갑’이 중복되어 관형절 내의 ‘지갑을’이 생략된 것이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이 ‘사람’을 꾸미는 관형절이며, ‘윤규가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문장이 관형절이 되면서 ‘사람’이 중복되어 관형절 내의 ‘사람을’이 생략된 것이다.

정답 ①

14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높임법의 종류가 일치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2017 기상직 9급

| 보기 |

ㄱ. 애들아, 우리 빨리 이 과제 끝내자.
 ㄴ.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이 편지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ㄹ. 잘 모르겠으면 아버지께 여쭙보는 게 좋겠어.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높임법의 구분

해설

제시된 예문들에서는 모두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ㄴ에서는 ‘어머니께서’와 ‘하셨습니다’에서 주체 높임법이, ‘선생님께’와 ‘드리라고’에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ㄷ에서도 ‘할아버지께서는’과 ‘사랑해주셔서’에서 주체 높임법이, ‘뵙고’에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ㄱ: ‘애들아’와 ‘끝내자’에서 상대 높임법 중, 아주낮춤의 ‘해라체’가 사용되었다.
- ㄹ: ‘아버지께’와 ‘여쭙보는’에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정답 ②

15 다음 중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하나는?

2017 서울시 7급

- ① 여보게, 어디 가는가?
- ② 김 군, 벌써 봄이 왔다네.
- ③ 오후에 나와 같이 산책하세.
- ④ 어느덧 벚꽃이 다 지는구려.

유형 통사론 / 문법 요소 / 상대높임법의 등급

해설

‘지는구려’는 예사높임인 하오체의 감탄형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은 모두 예사낮춤의 하계체이다. 예사낮춤의 하계체에 쓰이는 종결어미는 ‘-네, -르세’(평서문), ‘-는가, -냐’(의문문), ‘-게’(명령문), ‘-세’(청유문), ‘-는구먼’(감탄문) 등이다.

정답 ④

16 다음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기상직 7급

- ㉠ 농부들은 시원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소리도 없이 잔다.
- ㉢ 내가 사과를 산 시장은 값이 싸다.
-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 ①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은 절 표지가 없이 안긴문장이 있다.

유형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절(안긴문장)의 구분

해설

㉢에는 ‘내가 시장에서 사과를 샀다’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중복되는 ‘시장’이 생략된 것이므로,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① ㉠의 명사절 ‘시원한 비가 오기’에서 ‘시원한’은 ‘비가 시원하다’가 다시 관형절로 안기면서 중복되는 ‘비가’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는 것이다.
- ② ㉡의 ‘소리도 없이’가 ‘잔다’를 꾸미므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는 것이다.
- ④ ㉢에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서술절은 안은문장에는 따로 절 표지가 없다.

정답 ③

옛말의 문법

17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9급(하)

| 보기 |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① ㄹ
- ② ㄷ
- ③ ㅂ
- ④ ㅊ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훈민정음 제자 원리

해설

‘ㄹ’은 가획이나 병서의 원리로 만들지 않은 이체자이다.

오답풀이

- ② ‘ㄷ’은 ‘ㄴ’의 가획자이다.
- ③ ‘ㅂ’은 ‘ㅃ’의 가획자이다.
- ④ ‘ㅊ’은 ‘ㅉ’의 가획자이다.

정답 ①

18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9급(상)

| 보기 |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ㅁ들 ㅁ러 ㅁ디 ㅁ홀 노미 하니라 ㅁ이 ㅁ을 ㅁ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똥字를 ㅁㅇ ㅁ노니 사름마다 ㅁ이여 수비 니겨 날로 ㅁ매 ㅁ안키 ㅁ고져 흥 ㅁ르미니라

-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ㅁ’와 ‘ㅁ’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훈민정음 서문 분석

오답풀이

- ① “나랏 말쌔미~노미 하니라”, “내 이를~흙 썩르미니라”의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시러”는 ‘능히’라는 뜻이다. ‘載’는 ‘실’을 재로 ‘싣다’라는 뜻이다.
- ④ 중세국어 시기에는 ‘ㅏ’와 ‘ㅑ’의 발음이 달랐다.

정답 ③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하)

| 보기 |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① 목청, ‘ㅇ’과 ‘ㅎ’
- ② 윗잇몸, ‘ㄴ’과 ‘ㄷ’
- ③ 센입천장, ‘ㄱ’과 ‘ㅋ’
- ④ 여린입천장, ‘ㅏ’과 ‘ㅑ’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훈민정음 제자 원리

해설

‘ㄷ’은 ‘ㄴ’의 가획자이며, 둘 다 치조음으로 조음 위치가 동일하다.

오답풀이

- ① ‘ㅎ’은 ‘ㅇ’의 가획자이다. 다만 현대국어에서 ‘ㅇ’은 연구개음, ‘ㅎ’은 후음으로 조음 위치가 다르다.
- ③ ‘ㅋ’은 ‘ㄱ’의 가획자이다. 둘 다 연구개음이다.
- ④ ‘ㅑ’은 ‘ㅏ’의 가획자이다. ‘ㅏ’은 치조음이며, ‘ㅑ’은 경구개음이다.

정답 ②

20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말쌔물 ㉠술부리 하디 天命을 疑心호실찌 꾸므로 ㉡
뵈아시니
 놀애를 부르리 ㉢하디 天命을 모르실찌 꾸므로 ㉣알
외시니

(말씀을 아뢴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③ ㉢에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중세국어 문법

해설

‘알외시니’는 ‘알리시니’에 대응된다. ‘알리다’는 ‘알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외-’가 ‘알리다’의 ‘-리-’에 대응되므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① ‘술부리’는 ‘아뢴 사람이’에 대응된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이’는 ‘ㅣ’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는 생략된다. 따라서 ‘이’는 ‘사람’에 대응되는 것이다.
- ② 중세 국어의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샤/시-’만 쓰였다.
- ③ ‘하디’는 ‘많지만’에 대응된다. ‘-디’는 ‘-지만’에 대응되며,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정답 ④

나의 채점표

국어 문법[5회]

번호	정답	체크		난도	출제 영역		
		○	×		대분류	중분류	출제 키워드
1	③			중	통사론	문장의 짜임새	관형절의 구분
2	②			중	통사론	문장 성분	성분의 구분
3	①			상	통사론	문법 요소	높임법의 종류 구분
4	③			중	통사론	성분	성분의 구분
5	②			상	통사론	문법 요소	피동과 사동
6	③			상	통사론	문장 성분	성분의 구분
7	④			상	통사론	문장의 짜임새	안은문장의 구조 분석
8	③			중	통사론	문법 요소	피동 표현
9	④			중	통사론	문법 요소	피동과 사동의 구분
10	②			중	통사론	성분	필수적 부사어의 구분
11	④			중	통사론	문법 요소	높임법의 구분
12	①			중	통사론	문법 요소	높임법의 구분
13	①			중	통사론	문장의 짜임새	절(안긴문장)의 구분
14	②			중	통사론	문법 요소	높임법의 구분
15	④			중	통사론	문법 요소	상대높임법의 등급
16	③			중	통사론	문장의 짜임새	절(안긴문장)의 구분
17	①			하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훈민정음 제자 원리
18	③			중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훈민정음 서문 분석
19	②			중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훈민정음 제자 원리
20	④			상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점 개념

01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ㄱ ㅋ	ㅣ ㅡ	ㅏ ㅑ
ㄷ ㅌ	ㄴ ㄹ	ㅓ ㅕ
ㅁ ㅂ	ㅅ ㅆ	ㅗ ㅛ
ㅈ ㅊ	ㅇ ㅎ	ㅜ ㅠ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ㅅ’은 ‘ㅈ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② ‘ㅁㅂ’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 ③ ‘ㄷㅌ’과 ‘ㄴ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ㅎ’은 ‘ㄱ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훈민정음 제자 원리

해설

‘ㅁ’음 조음 위치상 ‘순음’, 조음 방식상 ‘비음’이며 ‘ㅅ’은 조음 위치상 ‘치음’, 조음 방식상 ‘마찰음’이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ㅅ’, ‘ㅆ’, ‘ㅈ’은 모두 치음에 속하므로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③ ‘ㄴ’에 가획한 것이 ‘ㄷ’, ‘ㄷ’에 가획한 것이 ‘ㅌ’이지만 ‘ㄹ’은 이체자이므로, 가획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대로 배치했다고 할 수 없으며, ‘ㄷ’, ‘ㅌ’과 ‘ㄴ’, ‘ㄹ’은 모두 설음이므로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으며,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ㅎ’은 ‘아음’에 속하므로,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역시 ‘아음’인 ‘ㄱㅋ’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정답 ②

02 <보기>는 중세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상)**

| 보기 |

중세국어 표기법의 일반적 원칙은 표음적 표기법으로, 이는 음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말한다. 이어적기는 이러한 원리에 따른 것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받침이 있는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말한다.

- ① 불휘 기픈
- ② 브르매 아니 뭇씩
- ③ 장괴판놀 땡글어늘
- ④ 바르래 가느니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중세국어 문법

해설

‘장괴판놀’은 ‘장괴판+울’의 구조로 된 어휘로, 앞의 체언은 원형대로 적고 뒤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는 소리대로 적는 거듭적기(중철, 혼철)를 한 것이다. ‘땡글어늘’은 ‘땡글(다)+어늘’의 구조로 된 어휘로,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분철)를 한 것이다. ①, ②, ④는 모두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기픈: 기(다)+-은.
- ② 브르매: 브롬+애.
- ④ 바르래: 바롬+애.

정답 ③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7급

千世 우희 미리 定^ㅎ산 漢水 北에 ㉠累仁開國^ㅎ샤
卜年이 𑚲 업스시니
聖神이 니스샤도 ㉡敬天勤民^ㅎ샤샤 더욱 구드시리
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에서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형태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된다.
- ㉡에서 ‘-샤’는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
- ㉢에서 ‘하’는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이시여’에 대응된다.
- ㉣에서 ‘쇼셔’는 청자를 높여 주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중세국어 문법

해설

㉠은 ‘敬天勤民^ㅎ--샤-(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아샤(연결어미)’의 구조로, ‘경천근민하시어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때 ‘-아샤’가 ‘-샤’로 주는데, 이 ‘-샤’는 현대국어에서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야’가 준 ‘-야’에 대응된다.

오답풀이

- ㉠은 ‘累仁開國^ㅎ--샤-(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아(연결어미)’의 구조로, ‘누인개국하시어’로 풀이할 수 있다. 이때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샤’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해서 준 것으로, 현대국어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시어’에 대응된다.
- ㉢은 ‘님금하’의 구조로, ‘임금이시여’로 풀이할 수 있다. 이때 ‘하’는 높임의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이시여’에 대응된다.
- ㉣은 ‘알--오--쇼셔’의 구조로, ‘아십시오’로 풀이할 수 있다. 이때 ‘쇼셔’는 중세국어의 상대 높임에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정답 ②

04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 7급(상)

ㄱ. 중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만 쓰였다.
 ㄴ. 사잇소리에는 ‘ㅅ’과 ‘ㅌ’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ㄹ.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ㅁ. ‘ㅇ’을 순음 아래 이어쓰면 순경음이 된다.

- | |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 ③ ㄴ, ㄹ, ㅁ | ④ ㄱ, ㄹ, ㅁ |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중세국어 문법

해설

- ㄱ: 중세국어 시기에는 중성을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로만 표기했다. 이것을 ‘팔중성가족용(八終聲可足用)’이라고 한다.
- 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음절을 조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했다. 또한 초성과 중성이 음운론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중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초성을 다시 중성으로 썼는데, 이를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한다.
- ㅁ: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중세국어 표기법 중 ‘이어쓰기[連書]’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풀이

- ㄴ: 중세국어 시기에 사잇소리는 ‘ㅅ’, ‘ㅌ’ 외에도 ‘ㄱ, ㄷ, ㅂ, ㅁ, ㅎ’ 등이 다양하게 쓰였다.
- ㄷ: 한자를 적을 때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한자음에 따라 표기하다가 1485년 이후 소멸되었다.

정답 ④

05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2017 국가직 9급(상)

- ① ㅜ ② ㅓ
- ③ ㅠ ④ ㅝ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훈민정음 제자 원리

해설

‘ㅝ’는 훈민정음의 28 자모에 체계에 들지 않는다.

오답풀이

‘ㅜ(여린히음), ㅓ(반치음), ㅠ’는 모두 28 자모 체계에 속한다. 정답 ④

06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서울시 9급

-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 ③ ‘·’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 ④ ‘ㅝ’는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ㅞ’로 변화했다.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근대국어 / 중세국어·근대국어의 특징

오답풀이

- ② 주격 조사 ‘가’는 근대국어 후반에 쓰이기 시작한다.
- ③ ‘·’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표기법 상에는 계속 남아 있었다.
- ④ ‘ㅝ’는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ㅜ/ㅠ’로 변화했다. 정답 ①

07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2017 서울시 9급

- ① 님금 ② 늦겨사
- ③ 바올 ④ 가빅야븐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훈민정음 제자 원리

해설

‘가빅야븐’의 ‘ㅝ’는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08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太子 | 道理 일우샤 즈개 慈悲호라 ㅎ시느니
“석보상절”

- ① ‘ㄱ’과 ‘ㄴ’이 단모음화된 시기이다.
-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
- ③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 ④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중세국어 문법

해설

제시된 문장은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가 자비하다 하시니’라는 뜻이다. 이 문장이 실려 있는 “석보상절”은 중세 국어 문헌이므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중세 국어 시기에 ‘ㄹ, ㅍ, ㄷ, ㄱ’은 글자 모양대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석보상절”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수양 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소헌 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쓴 책으로 세종 29년에서 3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①

09 다음 <보기>의 외래어들이 한국어 어휘에 유입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7 기상직 9급

【보기】

- ㉠ 붓[筆], 먹[墨]
- ㉡ 탕건[唐巾], 담배
- ㉢ 바리깡, 구락부
- ㉣ 아질게말[兒馬], 보라매[秋鷹]

- ① ㉠-㉡-㉣-㉢
- ② ㉠-㉣-㉡-㉢
- ③ ㉣-㉡-㉠-㉢
- ④ ㉣-㉠-㉡-㉢

유형 옛말의 문법 /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 외래어 유입 순서

해설

• ㉠: ‘붓[筆], 먹[墨]’은 중국어에서 온 것으로, 고대국어 시기에 유입되었다.

- ㉠: ‘탕건[唐巾]’은 중국어에서, ‘담배’는 포르투갈어에서 온 것으로, 근대국어 시기에 유입되었다.
- ㉡: ‘바리깡’과 ‘구락부’는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유입되었다.
- ㉢: ‘아질게물[兒馬], 보라매[秋鷹]’은 몽골어에서 온 것으로, 중세국어 시기에 유입되었다.

정답 ②

10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하)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혀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흥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궂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히며 괴운이 진흥 궂흔 것이 촛촛 나 손바닥 너비 궂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궂더라. 촛촛 나오더니 그 우흐로 적은 회오리밤 궂흔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궂고 뭍고 통낭하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 ①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 ②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 ③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형 옛말의 문법 / 근대국어 / 근대국어 문법

해설

‘원순 모음화란 입술소리 아래의 모음 ‘ㄱ’이 ‘ㄴ’로 바뀌는 현상이다. ‘숯불빛’의 ‘불’에서 ‘블’의 ‘ㄱ’이 ‘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오답풀이

- ① ‘혼철(混綴)’은 다른 말로 ‘중철(重綴)’이라고 하며,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중성에도 쓰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도 다시 쓰는 표기 방식.’을 뜻한다. ‘물밧출’은 ‘물밧+출’의 구조로 된 단어로 ‘물밧툷(중철) → 물밧출(7중성법, 구개음화의 과도한 적용)’의 과정을 거쳐 표기된 것으로, ‘물밧툷’의 과정에서 ‘혼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붉기’, ‘통낭하기’ 등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그믐밤의’는 ‘그믐밤에’로 해석되며 ‘의’가 현대 국어와 달리 관형격이 아니라 처소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11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경어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서울시 7급

보기

- ㉠ 太子 | 道理 일우샤 즈개 慈悲호라 히시느니 《석보상절》
- ㉡ 그 後로 人間엿 차바는 써 몬 좌시며 《월인석보》
- ㉢ 섬 안해 자쉴 제 한비 사으리로되 뷔어샤 즈므니 이다 《용비어천가》
- ㉣ 곶과 果實와 플와 나모와를 머그리도 이시며 《석보상절》

- ① ㉠의 ‘즈개’는 太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 ② ㉡의 ‘좌시며’는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 ③ ㉢의 ‘자’는 ‘자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 ④ ㉣의 ‘이시며’는 앞에 오는 ‘머그리’를 높이는 말로 쓰였다.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중세국어 문법

해설

㉢은 ‘곶과 과실과 풀과 나무를 먹는 사람도 있으며’라는 뜻이다. ㉢의 ‘이시며’는 ‘있으며’라는 뜻으로 높임 표현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은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가 자비하다 하시니’라는 뜻이다. ㉠의 ‘즈개’는 앞의 ‘太子’를 가리키는 높임의 재귀대명사이다.
- ② ㉡은 ‘그 후로 인간의 음식은 써서 못 잡수시며’라는 뜻이다. ㉡의 ‘좌시며’는 ‘잡수시며’라는 뜻으로, ‘먹다’의 높임말이다.
- ③ ㉢은 ‘(태조 이성계가) 섬 안에 주무실 때 큰비가 사흘이나 내렸는데 (태조 이성계와 그 군대가) 섬을 비우고 나서야 (섬이) 잠겼습니다’라는 뜻이다. ㉢의 ‘자’는 ‘자다’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여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정답 ④

12 다음 중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서울시 7급

- ①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 ②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 ③ 유성마찰음계열인 ‘ㅃ, ㅆ’이 실제로 존재했다.
- ④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유형 옛말의 문법 / 근대국어 / 근대국어의 특징

해설

‘시상법’이란 ‘시제’와 ‘상’을 합쳐 부르는 말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의 위치를, 상은 움직임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에 시상법 체계에서 ‘-았-/-었-’과 같은 선어말어미를 통해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오답풀이

- ① 언문일치는 1920년대, 즉 현대국어 시기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 ③ ‘ㅃ’은 15세기에, ‘ㅆ’은 16세기에 이미 소실되었다.
- ④ 15세기, 즉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정답 ②

13 다음 중 의문형 어미가 쓰이지 않은 것은? 2017 기상직 7급

- (가) 네 반드기 소노로 구디 ㄹ르쳐 니르라 어니 이 봄고
- (나) 巴蜀애 와 病이 하니 荊蠻애 가문 어느 힐고
- (다) 이 大施主의 功德이 하녀 저그녀
- (라) 그 어미 무로디 네 엇데 안다

- ① (가) ② (나)
- ③ (다) ④ (라)

유형 옛말의 문법 / 중세국어 / 중세국어 문법

해설

(가) ‘봄고’의 ‘고’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 체언 뒤에 붙어 의문의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오답풀이

- (나)에서는 ‘-르고’, (다)에서는 ‘-녀’, (라)에서는 ‘-나다’라는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각 문장의 현대어 풀이는 다음과 같다.
- (가) 너는 반드시 손으로 굳게 가리켜 이르라 어느 것이 보는 것인가.
- (나) 파촉에 와서 병이 많으니 형만에 가는 것은 어느 해일까.
- (다) 이 대시주의 공덕이 많은가 적은가.
- (라) 그 어미가 묻되 네가 어찌 아느냐.

정답 ①

14 다음 글을 읽고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7 기상직 7급

만약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문자 생활은 어떨까? 한문을 쓰고 있을까, 이두나 향찰 같은 표기법을 그대로 쓰고 있을까, 아니면 영어를 쓰고 있을까? 말은 우리말을 했지만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었을 것이니 말을 표기하는 방식은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상황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다음의 표기 방식 중 하나로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나는 학교에 간다.

- (1) 我去學校
- (2) 我隱 學校 厓 去隱如.
- (3) I nun school ae go handa.
- (4) Nanunhakoyae ganda.
- (5) I go to school

(1)은 한문으로, 이와 같은 표기는 과거 귀족이나 양반 계층의 문자생활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자 생활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 (중략) … (2)와 같은 표기는 과거 서리나 아전 같은 중인 계급의 행정 관리나 승려들이 사용했다. 이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바꾸고 우리말 토를 한자의 음이나 훈을 이용해 표시한 것으로 (㉠)(이)라 불렸다. 만일 한글이 창제되지 않아 상류층에서 한문을 사용하고 있다면, 행정 관리들은 (2)와 같은 방식으로 문자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

…(중략)…

우리 역사에서 (3), (4), (5)와 같은 표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이다. 오늘날 영어가 세계어로서 그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떨치고 있기에 이러한 가정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고유 문자가 없고, 영어의 위세가 지금과 같다면 사람들은 (3), (4), (5) 중의 한 방법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중에서 [㉡]와/과 같은 표기 방식은 (2)와 같은 [㉠]식 표기 방식을 연상시킨다. 한자 대신 영어가 사용되었을 뿐 그 원리는 같다.

- 최경봉 외,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	㉡
①	이두	(3)
②	이두	(4)
③	향찰	(4)
④	향찰	(5)

유형 옛말의 문법 / 고대국어 / 차자 표기 방법

해설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바꾸고 우리말 토를 한자의 음이나 훈을 이용해 표시한 것’을 ‘이두’라고 하며, (3) 역시 ‘는’, ‘에’, ‘-다’라는 토를 각각 ‘nun’, ‘ae’, ‘handa’로 표시하고 있다.

정답 ①

2022 9·7급 기태국어 Step2
기출분석

나의 채점표

⋮ 국어 문법[6회]

번호	정답	체크		난도	출제 영역		
		○	×		대분류	중분류	출제 키워드
1	㉔			중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훈민정음 제자 원리
2	㉓			중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법
3	㉔			상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법
4	㉕			중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법
5	㉕			하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훈민정음 제자 원리
6	㉑			상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근대국어	중세국어 · 근대국어의 특징
7	㉕			하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훈민정음 제자 원리
8	㉑			상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법
9	㉔			상	옛말의 문법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외래어 유입 순서
10	㉓			상	옛말의 문법	근대국어	근대국어 문법
11	㉕			상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법
12	㉔			상	옛말의 문법	근대국어	근대국어의 특징
13	㉑			상	옛말의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문법
14	㉑			중	옛말의 문법	고대국어	차자 표기 방법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점 개념
